

정읍시 ‘미생물 산업’ 핵심지 부상

익산·남원·임실 등 6개 시·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선정
국가 공모사업 참가 자격 등 혜택

정읍시가 전북권 내 ‘그린바이오 산업’의 핵심 선도지구로 떠오르고 있다.
정읍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하는 ‘미생물 융합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에 정읍시와 익산시,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등 도내 6개 시군의 409만 5293㎡ 부지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또 전체 부지 면적 중 정읍시의 부지 면적이 173만1804㎡로 42%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한다.
정읍시의 육성지구에는 신정동 전북연구개발특

구와 향후 확장될 첨단산업단지 부지가 포함됐다.
이곳은 이미 농축산물 미생물 관련 기업들과 생산 및 실증을 위한 기반 시설이 집적화된 곳으로 이번 지정을 통해 산업화를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육성지구로 지정된 이곳에는 ▲국가 전략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참여 자격 부여 ▲각종 기업 지원사업 가점 적용 ▲지자체 소유 부지·시설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 등 기업 유치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는 시가 지속적으로 확충해 온 첨단 분석 시스템 및 기업지원 시설과 결합해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확장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러한 비전 실현을 위해 2026년부터 정부 예산 사업 발굴과 중앙부처 공모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R&D)에서 시작해 실증, 사업화, 그리고 수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강화해 국내외 유망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를 촉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정읍은 도내 그린바이오 산업의 실증과 생산을 책임지는 중심지”라며 “이번 지구 지정을 통해 우리가 보유한 탄탄한 산업 기반을 국가사업과 연계해 한 단계 더 키워갈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이 마련됐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관련 미생물 국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수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체계적인 산업화 전략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 첨단산단에 건강식품 기업 신공장 들어선다

엔피케이 제3공장 착공식
첨단 생산설비 제조라인 구축

‘바이오 특화도시’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전북 정읍에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업체 엔피케이의 신공장이 들어선다.
정읍시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에서는 최근 이학수 시장과 박일 시의장을 비롯해 엔피케이 김성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엔피케이의 제3공장 착공식이 열렸다.
지난 2023년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던 엔피케이는 총 29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산단 내 9602.2㎡ 부지에 연면적 6977.83㎡ 규모의 공장을 지을 예정이며 내부에는 최첨단 생산설비의 제조라인과 연구·품질 관리공간 등을 갖출 예정이다.
공장이 완공되면 34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산단 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등과의 협업을 통한 민·관·연 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엔피케이가 첨단과학산업 단지에 동지를 틀게 되면서 바이오 기업들의 집적



지난 4일 정읍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에서 열린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엔피케이(주)의 제3공장 착공식에서 이학수(왼쪽 여섯번째) 정읍시장과 박일(왼쪽 다섯번째) 시의회의장, 엔피케이 김성준(왼쪽 일곱번째) 대표 등이 착공기념 시삽을 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화가 가속화되고 정읍이 명실상부한 바이오 특화도시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게 됐다”라며 “바이오 산업을 이끄는 선도기업인 엔피케이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엔피케이 김성준 대표도 “신공장을 건강기능식품 및 바이오 식·의약품 산업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모범적인 기업이 되겠다”라고 화답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 내년 국가 예산 4341억원 확보

올해보다 12.9% 증가...농촌중심지 활성화·청년특화주택 사업 등

고창군이 올해 대비 12.9%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4341억원의 국가 예산을 확보했다.
심적섭 고창군수는 지난 4일 연말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와 민선8기 주요 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2026년 정부예산은 727조9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8.1% 증가한 데 비해 고창군은 3844억원에

서 4341억원으로 12.9% 증가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성장세를 보였다.
내년 신규사업은 총 53건에 2320억원(총사업비)으로 당초 정부 예산안에 미포함되었던 산수지구 농촌융수 이용체계 재편사업(225억원), 노을대교 건설사업(실시설계비 40억원), 갯벌생태마을 지정관리 지원사업(8억6000만원) 등 지역의 숙원사업이

국회단체에서 최종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북부생활권(흥덕·성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300억원) ▲고창군 청년특화주택 사업(100억원) ▲월평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85억원) ▲고창읍 교촌마을 우리동네 살리기(67억원) 등이 반영됐다.
재해예방 및 선제적 안전인프라 구축 분야는 ▲와촌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371억원) ▲대동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330억원)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310억원) 등 1000억원여를 신규사업으로 확보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 전통 한옥호텔 개관 준비 ‘착착’

명지호텔 내년 4월 개관...광한루원 중심 한옥 숙박단지 중심축



지난 3일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할 한옥전통호텔 ‘명지호텔’의 상량식이 열렸다. <남원시 제공>

남원시는 광한루원 인근에 전통 한옥호텔인 ‘명지호텔’을 만들고 내년 4월 개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지호텔은 57억원이 투입돼 2060㎡ 부지에 지상 1층, 전체 건물 면적 455㎡ 규모로 건립된다.
6인용 객실 6개로 구성되며 객실마다 목욕탕, 화장실, 주방 등을 갖춘다.
명지호텔은 앞서 남원시가 만든 예촌, 명지각과

함께 광한루원을 중심으로 한 한옥 숙박단지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지역 관광 인프라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명지호텔은 광한루원 인근에 대규모 한옥 숙박 체험단지를 만들려는 구상 가운데 하나”라며 “지속해서 이를 확대해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겨울 추위 녹이는 ‘이웃 사랑’

정읍시사회복지협, 취약계층에 4000만원 상당 김치·생필품 전달



지난 5일 정읍공설운동장 내 장애인테니스장에서 열린 ‘정읍사랑 행복나눔잔치’에서 참여자들이 취약계층에 전달할 김장김치를 버무리고 있다. <정읍시사회복지협의회 제공>

정읍시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 취약계층에 김장김치와 생필품을 전달하는 ‘통 큰 나눔’을 펼쳤다.
정읍시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5일 정읍공설운동장 내 장애인테니스장에서 ‘정읍사랑 행복나눔잔치’를 열고 4000만원 상당의 성금과 물품을 모아 지역 취약계층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읍시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하고 정읍사랑 행복나눔 추진위원회가 주관했다. 행사를 위해 200여명의 자원봉사자와 시설·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
참여자들은 읍·면·동과 사회복지시설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1215세대를 위해 약 9725kg의 김장

김치와 양말, 마스크 등 필수 생필품을 준비했다.
정읍시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2015년부터 지역 사회단체, 기업, 종교단체, 독지가들과 협력해 겨울철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누적 3000여명의 취약계층에게 식료품과 생필품을 지원하며 지역 복지의 중심축 역할을 했다.
행사에 참석한 아이투엘 김희선 대표이사는 “사각지대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하는 후원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혼자 사는 세대 지원을 강화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공동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창고 매 매·임대

대 지 920평
건 물 680평 (1·2층)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127-3
(도로변·육교옆)

문의 062.220.0513
010.3646.2701